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축하하고 감격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감사제), 서원한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서원제), 예기치 않은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낙현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웃에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은 수평적인 관계의 변화로 연결됩니다.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주변에도 전파됩니다. 예배는 '나눔'을 통해 완성됩니다.

화목제물을 먹는 데에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감사제는 그날이 지나기 전에, 서원제나 낙현제는 다음 날까지 제물을 다 소진해야 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도록 남아 있는 제물은 모두 불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만일 규정을 무시하고 남은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드린 제사도 무효가 됩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1,300~1,500근이 된다고 하니, 제사장의 몫을 떼어 내도 나눌 고기의 양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루 이를 만에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미운 사람'에게까지도 나눠 줘야 했을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화해의 장입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아직은 웃을 수 없는 사람들과도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억지로 깊어지는 십자가일지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물을 나누는 기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까? 일주일쯤으로 정해 주셨다면,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감사와 감격, 즐거움이 절정인 순간에도 나눌 수 없다면, 시간이 지나도 나눌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 그대로 즉시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나서 긴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헨리 블랙커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나의 예배는 이웃과
삶으로 이어집니까?

- 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 잡혀 있습니까?
- ②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까?